

의자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며

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룡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시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하나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미니골프장의 전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무밑에 설치한 원형의자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사실 그 원형의자로 말하면 몇달전 이곳을 찾으시여 미니골프장에 큰 나무들을 심어 그늘도 지어주고 그밑에 사람들이 앉아 휴식할수 있는 의자도 많이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생겨난것이였다.

만족하신 안색으로 의자에 앉으시여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하시던 말씀을 끊으시고 원형의자를 살펴보시였다.

바닥을 내려다보기도 하시고 의자의 앉음판도 눌러보시며 한동안 무엇인가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의자에 앉아보니 의자가 좀 낮은것같다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의자에 다가가 앉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앉음새를 가늠해보시다가 의자를 좀 높여야 될것같다고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편리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람들이 느낄수 있는 자그마한 불편까지 세심히 헤아려보신것이였다.